

## 다카사고 신사 개요

다카사고 신사는 다카사고의 신, 오나무치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신사는 노(能)의 상연 목록 중 『다카사고』의 무대가 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能)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된 일본 전통 예능으로, 『다카사고』를 만든 사람은 노의 배우, 극작가, 작곡가를 겸하는 제아미 모토키요(1363-1443)입니다.

경내에는 신성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줄기가 하나의 뿌리에서 만난다고 해서, 극 중에서는 '상생의 소나무'(쌍둥이 소나무)라고 불립니다. 이 소나무에 깃들었다고 하는 정령은 조(尉)와 우바(姥)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노부부로 부부의 행복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조와 우바의 전설과 소나무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자 다카사고 지역은, 부부화합에 관한 많은 전설이 남아있어 '인연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결혼식에 조와 우바의 이미지가 사용되며, 신랑신부석을 '다카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能)의 고전인 요쿄쿠(謡曲, 노(能)의 대본에 가락을 붙여 부르다) '다카사고'는 길고 행복한 결혼을 주제로 해, 결혼식 축하곡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경내에는 중앙에 본전, 봉납을 위한 폐전, 참배를 위한 배전이 있고, 본전 남동쪽에 노(能) 무대가 있습니다. 경내에서는 약 3천 개의 촛불로 가득 메우는 등롱 축제와 가을 축제 등의 연중행사와 달 구경을 위한 관월노(觀月能)가 개최됩니다.